

## UNESCO 제2차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



김 환 식  
교육부 사무관<sup>1)</sup>

1999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UNESCO 제2차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Second International Congress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우리 정부와 UNESCO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회의로서 186개 UNESCO회원국, UNESCO·ILO·OECD 등 직업기술교육관련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기구(International NGO)등에서 약 700여명의 직업기술교육 전문가와 정책결정자가 참가하게 된다. 특히 UNESCO사무총장과 ILO사무부총장도 참석하며, 다수의 장관급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동 회의 준비를 위해 '97.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회의 준비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부와 UNESCO한국위원회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아 금년 7월 회의준비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UNESCO 제2차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와 이 회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UNESCO의 UNEVOC Project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 1. UNEVOC

#### 가. UNEVOC이란?

UNEVOC은 UNESCO와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에서 각각 “UNE”와 “VOC”를 따서 만든 합성어로서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교육과학문화기구)의 직업기술교육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 나. UNEVOC의 탄생

UNEVOC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1987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회의에서 UNESCO 회원국간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회원국의 직업기술교육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1)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UNESCO사무국에 파견 근무중이다.

Center를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9년 UNESCO의 모든 회원국들 대표(장관)가 모인 제25차 UNESCO총회에서 직업기술교육분야의 국제적인 Center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안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1991년 제26차 UNESCO총회에서는 그해 초 발표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UNEVOC Project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독일정부와 1992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UNEVOC Project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협정의 주된 내용은 독일정부가 '93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 UNEVOC Project에 재정지원을 하고 UNEVOC Project의 집행부서(Implementation Unit)를 독일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 다. UNEVOC의 사업영역과 활동

UNEVOC의 사업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정책의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경험 그리고 연구성과들의 교환(International exchange of ideas, experience and studies on policy issues)”, “회원국의 R&D 능력 강화 (Strengthening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그리고 “UNEVOC Network강화 및 직업기술교육 DB에의 접근성 촉진 (Facilitating access to databases and documentation; Strengthening the UNEVOC network)”이 그것이다.

이러한 UNEVOC Project는 독일에 있는 UNEVOC Berlin이 주축이 되어 회원국에 구성된 UNEVOC Center, UNEVOC Associate Center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UNESCO는 전세계적으로 약 200개 정도 기관을 UNEVOC Center, UNEVOC Associate Center로 지정하였으며,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부가 UNEVOC Center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Associate Center로 지정되어 있다.

## 2. 제2차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

### 가. 회의 배경

UNESCO가 1999년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UNEVOC Project는 1999년이 사업의 마지막 해이다. 그동안

UNEVOC Project에 재정지원을 해왔던 독일정부가 1999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UNEVOC Project는 1997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UNESCO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보고서와 UNESCO 직업기술교육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의 평가보고서 그리고 UNEVOC Project 이후의 조치가 미비된 실정을 고려하여 UNESCO는 독일정부와 계약을 갱신, 1999년까지 Project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새로운 1,000년(Millennium)을 맞이하는 직업기술교육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바 UNESCO의 직업기술교육정책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UNESCO 직업기술교육회의는 일반적으로 10년을 주기로 개최되며 이 회의에서 다음 10년간의 UNESCO 직업기술교육정책방향이 결정된다. 이런 이유로 UNESCO는 1999년에 종료되는 UNEVOC이 아닌 새로운 직업기술교육 Project를 준비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회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UNESCO의 21세기 UNESCO 직업기술교육 정책방향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일로서 여기서 결정되는 정책 방향은 21세기 처음 10년 동안의 UNESCO 직업기술교육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직업기술교육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인적 Network 구축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회의 주제 및 의제

##### 1) 주제

내년도 회의의 주제는 “Lifelong learning and training: A bridge to the future”로서 평생교육과 훈련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Bridge)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 2) 의제

세부적으로 내년도 회의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7개의 의제(Theme)가 논의된다.

- 의제 1 : 21세기의 변화하는 수요 - 직업기술교육에의 도전 (The changing demands of the twenty-first century: Challenges to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 의제 2 : 평생교육과 훈련체제 구축 (Improving systems providing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out life)
- 의제 3 : 교육과 훈련과정의 혁신 (Innovat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cess)
- 의제 4 :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TVE for all)
- 의제 5 : 직업기술교육기관들과 정부의 역할 변화 (Changing roles of government and other stakeholders in TVE)
- 의제 6 : 국제협력강화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VE)
- 특별의제 : 한국의 직업기술교육의 혁신과 개혁 (Innovation and reform of TVE in the Republic of Korea)

회의 의제를 통해 내년도 회의에서 도출될 결론을 미리 예측해 보면, 먼저 UNESCO는 26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총회에서 의제 1인 직업기술교육분야가 당면한 주변 여건의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27일과 28일 이틀간 활동하는 총 네 개의 위원회중 처음 세 개의 위원회에서는 의제 1에서 논의된 환경변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UNESCO의 21세기 직업기술교육의 정책방향이 토의될 것이다. 즉 “평생교육과 훈련체제의 구축”, “교육과 훈련과정의 혁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이 UNESCO의 21세기 직업기술교육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마지막 네 번째 위원회와 29일 오전에 개최될 총회에서 토의될 의제 5와 의제 6도 다른 세 개의 위원회 의제와 마찬가지로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된 방향들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수단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당할 것 같다. 즉 위에서 본 정책방향에 맞추기 위해 21세기에는 직업기술교육기관들과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UNEVOC Center, UNEVOC Associate Center가 변형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Network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UNESCO가 내년 의제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21세기 UNESCO 활동의 변화가 예상된다. 즉 그동안 UNESCO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에 활동 초점이 맞추고 있었으나(실질적으로는 Literacy Education for All이라고 할 수 있었음) 21세기에는 Literacy

Education의 자리를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이 이어받게 될 것 같다.

### 3) 소집단 회의(Round Table)

27일과 28일 이틀간 저녁에는 UNESCO가 아닌 다른 국제기구들이 주관하는 소집단 회의(Round Table)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제2차 직업기술교육회의 참석자 중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며 모든 참석자들에게 소집단 회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다. 개최될 소집단 회의의 주최자와 회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ILO & ILO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in Turin : 위기, 갈등 그리고 훈련 - 국제협력과 실천의 희망적인 전망 (Crisis, conflict and training : Promising practi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European Training Foundation : 변위기 국가들의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도전 (Challenges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countries in transition)
- UNESC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IIEP) : 청소년들의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동 (Youth transition from school to the world of work)
-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UIE) : 성인 교육의 관점 - 의제들의 균형 (The perspective of adult learning : A balance of issues)
- The Department of Training and Industrial Relations (DTIR), Queensland Government, Australia : 직업기술교육훈련과 기업간의 연계 촉진 (Promoting linkage between TVET and enterprises)
- Commonwealth of Learning & British Council :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유연한 전달시스템 (Flexibility delivery of TVET)

### 4) UNESCO 직업기술교육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개최

또한 UNESCO는 1999년 5월 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UNESCO 직업기술교육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UNESCO 직업기술교육분야의 장기 프로그램의 초안이 재검토될 것이다.

## 라. UNESCO의 사전 준비 활동

UNESCO는 UNESCO사무차장보(Assistant Director General)를 중심으로 12명으로 구성된 행사준비 전담팀(Task Force)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준비회의(Preparatory regional conferences)를 개최하였다. 아시아의 경우 1998년 3월에 호주 아델레이드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유럽의 경우 1998년 9월 그리스의 그레테에서, 아프리카는 1998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아랍지역의 경우엔 1998년 11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Abu Dhabi에서,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연안 지역의 경우엔 98년 11월 에콰도르의 키토에서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들은 내년도 회의때 발표되고 나라별·지역별 협력 방안 수립시 참고가 될 것이다.

## 마. 우리 나라의 기대 효과

우리 나라는 UNESCO의 10여번째 재정분담국이지만 분담액에 비해 우리 나라의 역할은 미미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NESCO의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UNESCO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UNESCO 직업기술교육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은 강화될 것이다. 그동안 UNESCO의 직업기술교육활동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rope지역에 편중되었으나 실제 UNESCO의 지원을 바라는 아시아·아프리카의 중·후진국들은 발전과정이 상이하고 직접 적용하기에는 너무 경제발전단계가 빠른 선진국들의 경험보다는 우리 나라처럼 후진국으로부터 최단 기간 내에 OECD에 가입하게 된 선형경험을 가진 나라로부터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UNESCO 직업기술교육분야에서의 우리 나라의 역할은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본다. 특히 우리 나라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되고 관련 전문인력이 세계로 나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6. 우리 나라의 개최 준비

이러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는 준비사무국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비(자문)위원회를 분기별 1회씩 개최하고(1차 회의는 9월 개최했음) 유관부처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

원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의 우수한 직업기술교육훈련기관 소개, 교육훈련기자재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자격제도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 국제직업기술교육박람회(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가 UNESCO의 협조아래 1999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COEX에서 개최된다. “일, 교육 그리고 미래(Work, Education and the Future)”라는 주제하에 준비되는 이 행사에는 전세계에서 온 직업기술교육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이 모두 관람하게 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직업기술교육을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 나라 직업기술교육분야의 NGO(비정부조직)들과 INGO(International NGO)들이 모두 참여하는 NGO Forum을 27일 하루동안 개최하여 21세기 직업기술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NGO의 역할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회의를 통해 점차 영향력이 증대되어 가는 NGO 활동에서도 우리 나라 NGO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29일 오후에는 국내의 우수한 직업기술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훈련기관들을 방문하는 Study Visit Program을 운영하여 외국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직업기술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0일 오전에는 국제직업기술교육박람회와 NGO Forum 그리고 Study Visit을 통해 우리 나라 직업기술교육현황에 대해 윤곽을 갖게 된 외국 참석자들에게 “우리 나라 직업기술교육의 혁신과 개혁”이라는 특별의제로 회의의 마지막 날을 장식함으로써 우리 나라 직업기술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도록 할 것이다.

문의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UNESCO준비사무국  
Tel 02-3498-5600, Fax 02-3498-5612  
E-mail : tvecong@chollian.net  
Homepage : www.tvecong.re.kr